

완주 청년키움식당 '전국 최고'

농식품부 우수운영사례발표회서 장관상 2·시장상 1개 등 수상

완주군의 청년키움식당이 전국 최고를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하는 2018년 청년키움식당 우수운영사례발표대회에서 외식창업인큐베이팅추진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청년키움식당 참가팀인 일면식팀(우석대학교)도 최우수상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순가립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시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총 40개팀 중 지역별 9개팀이 참여했다.

완주군은 올해 농업과 외식산업의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4월 이서혁신집에 문을 열었다.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영업장을 운영했고, 올해 총 10팀(29명)이 참가해 취업 5명, 협동조합창업 1팀, 창업 2팀의 실적을 보였다.

완주군은 지역 내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구성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었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지역과의 교류도 강화했다.

또한,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전북기독교성지회사업추진협의회와 예수병원이 19일 전주시기독교고대역사기념관 기공식을 가졌다.

설립하는 등 창업인큐베이팅이 아닌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가치있는 꿈을 실현하는 장을 마련해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외식창업을 위한 메뉴개발, 경영, 생산유통, 회계 등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참가자들의 1대1 밀착형 컨설팅을 진행했고, 운영전과 후로 전반적인 점검 및 운영 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 컨설팅까지 지원하면서 취·창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모델을 구축하고 창업자와 생산자의 연계를 통한 우리농산물의 소비확대로 완주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먹거리완주를 선도할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추진단은 2019년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면서 2019년에는 완주군 복합문화지구 내 누에아트홀 레스토랑에서 진행될 예정이 다. /완주=이종복 기자



NH참여우-나눔축산운동본부 '축산물 나눔 행사'

NH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권용학),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연말을 맞아 20일 참예우명품프라자 도점점 연회장에서 효자5동 관내 지역주민 5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우전골을 대접하는 '축산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이병철 도의원, 박형배·이미숙·고미희 시의원, 이상배 효자5동장이 참석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권용학 NH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는 "참여우는 지역사회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전북도 한우 권역브랜드인 '참여우'를 더욱 사랑해 주며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산농협, 동지팔죽나눔행사로 지역 어르신 장수 기원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20일 고산농협에서 관내 조합원과 어르신들 300여명을 대접하는 동지팔죽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지를 맞아 실시하는 이 행사는 고산농협이 후원, 고산농협 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부녀회를 주축으로 하는 나눔 행사로 조합원과 어르신들 300여명과 함께 건강, 장수를 기원하며 동지팔죽, 떡, 과일 등을 대접했다.

또한, 관내 경로당 90여곳에도 팔죽, 물김치, 굴5kg도 전달하며 정을 나누고 지역내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김영태 기자

진안 동향면에 따뜻한 기부 손길 이어져

진안군 동향면(면장 전용기)에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지난 18일 성산리 하행마을 주민 민병환(64)씨가 동향면에 80만원 상당의 라면 30박스를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동향면에 머위작물을 들여와 소득사업을 시작하는데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민씨는 "앞으로도 이웃들과 항상 나누고 베풀며 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마을에 사는 남상복(76세)씨는 12월 초 가득 찬 돼지저금통을 가져와 66,000원을 면에 기탁해 저소득 가정에 라면 3박스를 전달하였다. 전용기 면장은 "연말이 되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잊지 않고 매년 행보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농협, 여성조직과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0일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회장 정명숙),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이경자), 농촌사랑봉사단(회장 은경희)의 회원들과 김제 제일사회복지관을 방문, 김치 500kg, 쌀 200kg 등 위문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했다.

정명숙 고향주부모임회장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작은 정성으로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농촌사랑봉사단'은 지역농협과 함께 '취약 농가인력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농업교육 멘토링 활동, 나눔행사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지역경제 침체 속 연말 군산 조촌동에 사랑나눔 가득

지역경제 침체로 나눔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군산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고 있다.

조촌동에 소재한 의료법인 성하의료재단 누가병원(이사장 오수연)은 지난 19일 조촌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20일 군산시 동광교회(목사 문성환)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조촌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남원 산동초, 내고향 물지킴이 육성프로그램 경진대회 1위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에 따르면 남원산동초등학교는 한국농어촌공사 주최해 지난 18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제4회 내고향 물지킴이 육성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전국 14개 학교 중 대상(1위)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남원국악교(교장 김만열)는 우수상을 수상해 남원지역에서만 2개 학교가 대상(산동초)과 우수상(남원국악교)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표창과 시상식은 20일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서 실시되었으며 최순철 산동초등학교교장이 대표로 대상을 수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음

▲임용택 전북은행장 모친상= 빈소: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 분당 메모리얼 파크



한은 전북본부, 유관기관 직원에 한은 총재 포상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일 전북지역경제 모니터링, 조사·분석, 발원 등의 업무 수행에 공헌한 유관기관 직원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했다고 밝혔다.

유창호 본부장은 포상자에게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 기념품을 전달하고 양 기관의 업무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 안전면, 이웃사랑 성금 집중모금 캠페인

진안군 안전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최방규)는 20일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집중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나눔과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안전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안전면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단 등 협력단체와 기관·단체를 비롯한 각 마을 주민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생활개선회, 봉사활동으로 한 해 마무리

한국생활개선회진안군연합회(회장 박옥희)는 20일 연말 총회를 마치고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에서 배운 '홍삼오란다'를 만들어 진안읍 원반원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민음의 집에 전달했다.

민음의 집 송현순 원장(61)은 "시설에 계신 분들이 좋아 할 만 한 홍삼오란다가 깜짝 선물로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어르신들과 마음속 깊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 '찾아가는 실버시네마', 어르신들 큰 호응 얻어

"농한기에 소일거리가 없어 심심한데 이렇게 찾아와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지회장 김봉호)가 지난 20일 농한기를 맞아 관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에게 영화를 상영해주고 있어 화제다.

작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실버시네마' 사업은 관내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직접 찾아가 고령영화부터 최신영화까지 신청자 수요에 맞춰 영화를 상영해주고 있다.

노인회 관계자는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을 추진한 우리들도 고마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영화관람을 희망하는 경로당은 적극적으로 찾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경찰,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우수 회원 격려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는 19일 모범운전자회(회장 최영배) 회와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남원지역 교통사고예방에 많은 협조와 봉사활동에 기여한 우수회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2018년 출·퇴근시간대 러시아워근무, 춘향제 등 크고 작은 남원시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교통사고예방 협조, 경찰협력 활성화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사회공공체 치안했에 기여한 공이 있는 박준양, 양영석 모범회원에게 대해서도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최홍범 서장은 "남원모범운전자회가 전복청 주관 베스트모범운전자회 1호로 최초 선정 되는 등 경찰업무 등의 협조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